

# 기본소득이시다

- ‘파문’ 지상중계 #4, 이문재 편

“미래에게 미래를” -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 축하

이문재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인 것도 한참 전이다  
미안해서 그렇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 아들딸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그렇다  
삶의 방식에서 천지자연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돌아보니 그간 내가 보낸 것은 다 ‘나쁜 것’이었다  
호모사피엔스 탄생 이래 이처럼 ‘거대한 단절’은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발전과 풍요의 명목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빼앗아 왔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려줘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길은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회복된다  
청년이 살아나야 노인과 어린이도 살아난다  
이제 시작이다  
기본소득은 가지 않은 길이고 갈 길 또한 멀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전 인류가 기본소득 수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  
우리 사피엔스는 물론 못 생명이 바라 마지않는 ‘지속가능한 인류세’는 그때 열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는 기본소득이다

## 제 1부: 내 젖은 구두의 산책 - 시인 이문재의 길

<미래에게 미래를>에 담긴 뜻

한인정: 심장이 녹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낭독해 주신 이 시는 이문재 선생님이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의 축시로 보내주신 시이자 시집 『혼자의 넓이』에 실린 시인데요. 참 멋있죠? 네, 오늘은 이 시의 주인공 그리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문재 시인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먼저 이 시에 담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이문재: 방금 다 읽어드렸는데요. 압축하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편리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훑쳐다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미래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반성이고요, 그런 반성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가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아직도 조금 어색하네요. 앞으로 시를 잘 쓰겠습니다.(웃음)

한인정: 대문호한테 이런 반성의 말을 다 듣네요.

이문재: 아, 그런 얘기하지 마요. ‘문호’가 아니라 ‘문재’입니다.(웃음)

한인정: 오늘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오프닝을 했네요. 좀 늦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의 MC를 맡고 있는 팔매입니다. 오늘은 이문재 선생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객원MC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장시정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장시정: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의 장시정입니다. 나눔과 연대를 지향하는 인천사람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얼마 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생

태계 보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행동하려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부터 혼자의 넓이  
까지 시인 이문재의 길

한인정: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콜롬비아 투어를 하고 오신 분이세요. 이문재 시인님을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좀 간단하게 약력을 읊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정: 간단하게 읊겠습니다. (한인정: 아주 간단하게요.) 이문재 선생님은 1982년 동인지 『시운동』 4집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으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호텔』, 『지금 여기가 맨앞』, 『혼자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기자생활을 오래 하셨구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약력에서 빠뜨린 게 있나요?

이문재: 많이 있는데요. 뭐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품성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웃음)

장시정: 품성과 결혼은 차근차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기자 이문재, 특종을 안 하기 위해 노력한

한인정: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시사저널』 기자생활이 좀 흥미로운 편인데 그 당시에 김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고 주진우 기자를 키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탄소중립'이란 말도 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중립이 뭐지? 안 와 닿아요. 기본소득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건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좀 논의가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구요.”

**이문재:** 김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건 팩트구요, 주진우 기자를 키웠다고 하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한인정:** 어떤 면에서…?

**이문재:** 주진우 기자는 스스로 컸지요. 제가 뭐 키우고 어떻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스스로 컸습니다.

**한인정:** 기자생활을 하셨을 때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문재:** 저는 대단한 기자였습니다.(웃음) 왜냐하면 저는 특종을 안 했어요. 특종을 안 하기 위해서 저처럼 애를

쓴 기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종상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어요. 기자 생활할 때 호봉이 거의 매년 한 호봉 한 호봉 올랐어요. 특종상을 받아봤자 상금이 많아야 100만 원인데 한 호봉이 올라가면 퇴직할 때까지 누적하면 상당합니다. 근데 그 한 호봉이 올라간 이유는 특종을 해서가 아니라 기사를 많이 써서였어요. 그때 제 별명이 ‘자동판 매기’였는데 ‘재는 그냥 월급만 주면 기사가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기사를 정말 많이 썼어요. 많이 쓴 이유가 ‘너희들은 나가서 특종을 해라, 나머지 『시사저널』의 뒷 페이지는 내가 다 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기사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술자리에 가도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저게 기삿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은 《경향신문》 기자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단골 술집에

갔더니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제가 취재를 해서 쓴 적도 있고. 어쨌든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빠르게. 이런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종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고 대신에 기사를 많이 써서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한인정: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기자가 꿈이셨을까요? 사실 다른 분들은 시인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꿈은 기사를 원래 원하셨던 건가요?

이문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1984년 10월 말에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저기 원하면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SF 같은 소리겠지만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원하는 분야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래 봐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2급 정교사. 그러니까 안 되면 사립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면 됐으니까. 아주 먼 나라 얘기죠?

#### 기자의 문법과 시인의 화법

장시정: 지나온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시인의 화법과 문법은 기자의 문법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둘을 병행하시기가...

이문재: 저는 병행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편집국에서 쓰면 기사고 밖에서 쓰면 시고, 뭐 그런 거였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인정: 그때의 기사를 한 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경계를 두지 않았어요. 기사하고 시하고. 아주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매번 새로워야 돼요. 매번 새로워야 합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저는 기자 생활을 비교적 즐겁게 했어요. 매번 새로운 걸 가서 취재해야 하고 또 새롭게 써야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관심사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시하고 기사하고 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기본소득』 창간 축사를 그냥 시로 쓴 것처럼 기사로 쓴 걸 그냥 시로 쓴 적도 있고

아니면 시로 써야 되는데 바쁘니까 기사로 쓴 적도 있고(웃음)... 넘나들었습니다. 이거 농담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한인정: 특종을 쫓아다니는 거랑 일상의, 바로 옆 테이블 이야기를 가져서 쓰신 거랑 연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장시정: 저도 돌아가서 선생님이 쓰신 기사 중에서 시 같은 기사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네, 구글에 검색해 보면 한 자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 서정시에서 문명 비판으로 - 이문재 시가 걸어온 길

장시정: 선생님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 와중에도 시를 같이 쓰셨잖아요? 선생님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서정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농촌 붕괴, 기후위기, 자본주의와 성장 위주의 문명을 비판하는 시가 많이 보입니다. 선생님의 시 세계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재: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건 1978년 대학에 들어가서였는데요. 제가 국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예비고사 점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점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체력장 점수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리야 없겠죠. 하여튼 원래 저는 영문과에 가려고 했어요. 영문과 멋있어 보여서. 그런데 그 10점 차이 때문에 선생님이 영문과 원서를 안 써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국문과에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갔더니 3년 위로는 어마어마한 선배들이 있고 또 제 동기, 그때 스무 명이 입학했는데, 한 일곱명 정도가 이미 고등학교 문단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문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1978년 4월 11일 오후 4시, 그 류시화 시인이라고 있죠, 그 때는 류시화가 아니고 안재찬이었는데, 키가 상당히 커요, 문리대 104 강의실이었는데, 저는 앉아 있었고, 시커먼 키 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저한테 손을 내밀며 ‘우리 같이 시를 써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제가 그 전에 학교에 들어갔거나 다른 학교에 들어갔거나 하면 저는 지금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터뷰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웃음)

한인정: 그럼 류시화 시인이 선생님을 이 자리에 이끄신 셈이네요. 선생님 시집 중에서 사람들은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시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문재: 증거 있으세요?(웃음) 없을 거예요.

한인정: 많은 기사의 인터뷰로 나와 있던데…

이문재: 아네요. 답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전 그 뒤로 제 시집을 잘 읽어보지 않았어요 못 읽어요, 얼굴이 이렇게 화끈화끈거리서… 그건 넘기세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네요.

### 시인 = ‘시만 생각하는 사람’

장시정: 선생님은 시를 쓰실 때 주로 언제 시상이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가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재: 근데 왜 ‘영감’이란 말을 안 하세요? 그 영감이 언제 떠오르느냐고 물으면 저는 대단히 화를 냅니다. 영감이 떠올라야 시를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늘 기사 생각만 했다고 했잖아요? 기사, 시, 늘 생각 하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에 호두알 넣고 다니듯이 늘 머릿속으로 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오른

다, 시상이 떠오른다, 이런 건 저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저하고는. 인도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간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 스승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제자가 스승한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도둑입니까?” 스승이 “도둑질만 생각하는 놈이 도둑이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많이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시인입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고 시만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근데 이걸 거의 진리 같아요. 축구 선수들은 늘 축구만 생각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사기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상을 늘 떠올립니다. 지금도 시를 좀 써야 되겠는데… (웃음)

장시정: 선생님이 시를 쓰게 된, 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류시화 선생과의 인연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간행된 류시화 선생의 시집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에 선생님에 관한 시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문재: 알고 있습니다.

장시정: 「시 - 이문재 시인에게」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 시절의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시를 써야 하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구절이 있고요. 또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시를 썼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돌아보시기에 선생님은 그동안 어떤 시를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시를 쓰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류시화 시인이 ‘이문재에게’라고 한 그 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쓴 것이기도 하고 또는 모든 시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는 읽었구요. 제가 어떤 시를 썼는지, 또 어떤 시를 안 썼는지 이걸 정말 답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기자 시절에 대전

에 내려가서 소설가 복거일 선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설 쓰는. “선생님은 어떤 소설을 쓰세요?”라고 지금과 비슷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평생 잊지 못할 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쓴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읽고 싶은 시를 쓰질 못했어요. 옛날에 무슨 문학상을 받을 때 아주 건방진 소리를 했었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쓰면 발표하지 않고 내 관 속에 넣어서 가져가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제가 읽고 싶은 시예요. 근데 아직 못 썼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장시정: 선생님이 읽고 싶은 선생님의 시도 저희들에게 공개해주시면...

이문재: 저는 시나 글이나 공적인 행위라고, 미디어에 실리는 공적인 행위라고 말해왔는데요. 공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윤리적인 거죠.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시를 막 발표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윤리적인 시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담을 말하려다 보면 자꾸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요.(웃음)

### 시의 역할, 혹은 상상력의 촉진제

한인정: 쓴 사람 본인이 읽고 싶은 시,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읽고 싶은 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안 많아서 그런 건지 ‘시의 영향력이 낮아진 시대’라는 표현도 항간엔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의 역할, 아까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적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문재: 아~ 이거 어려운데... 근데 시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시의 영향력이 컸던 적이 있나요? 우선 저는 시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과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국문과, 문예창작과가 없어지면 시는 더 저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럼에도 저는 시가 공적인 영역에서 서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떻게 사회

적 영향력을 갖느냐? 수백만이 시를 읽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이런 겁니다. 어떤 무언가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 시를 읽고 그 상상력이 조금이라도 커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제 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외국 책들을 보면 외국의 인문학자들이 자기 글 앞에 시를 한 줄씩 인용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언제 시를 좀 제대로 써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기 책을 낼 때 그 한 줄을 인용할까? 그게 제 꿈이었어요. 아주 원대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효제 선생님의 『एको사이드』 뒷부분에 제 시 한 줄이 인용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와 자기 성찰, 그리고 재탄생

장시정: 선생님은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이나 시 창작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읽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자기성찰과 재탄생 방법이 글쓰기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성찰을 강조하시고 수업에 들어갈 때도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먼저 하게끔 만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업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문재: 그 의도는 대단한데요. 실제로 학습 효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성찰’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성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에서부터 경제, 교육,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기성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저는 문학보다는, 물론 글쓰기도 넓은 범주 안에서 문학에 들어가겠죠, 이른바 창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글로 엮어내는 그것이 자기성찰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페니베이커Penne Baker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분의 『털어놓기와 건강』이란 책이 있는데 1999년에 학지사 에센가 번역이 됐습니다. 절판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짓 말을 해도 됩니다.(웃음) 이분이 ‘정신신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연 분이예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이야기이죠. 이분이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이야기해요. 저는 그 책을 읽기 전부터 이 글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를 글로 쓰면 정신뿐만이 아니라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자기성찰은 단순히 어떤 인문학적인 차원,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 인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페니베이커가 그걸 실험했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수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두 개의 집단을 모아 놓고 한 집단은 아주 일상적인 글을 쓰게 하고 다른 한 집단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쓰게 했어요. 쓰기 전에 피를 뽑고, 쓰고 나서 피를 뽑았어요. 일상적인 글쓰기를 한 집단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면역력에. 그런데 이 털어놓기 글쓰기를 한 친구들은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하는 친구들은 계속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두 분도 글쓰기를 하세요.

장시정: 넷플릭스보다는 글쓰기를 해야겠네요.

이문재: 넷플릭스 보면 눈만 아프죠. 웬만하면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나요? 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다 나보다 좋은 데서 살지, 나보다 총도 잘 쏘지, 쏘면 다 죽지. 저는 그래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글을 써보세요. 왜 ‘재탄생’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제가 쓰냐 하면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그동안 내가 하찮은 삶을 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사회에 자존감 많은 사람은 대단히 많아요. 자존감만 있는 사람들은 자칫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존감에 뿌리를 둔 자존감이 진정한 자존감이예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금메달리스트가 제일 불행하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에 안 나갑니다.(웃음)

한인정: 지금까지 이문재 시인의 시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선생님이 올림픽을 안 나가는 이유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미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을 보면서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다른 타인을 만나는 건데 내 안의 나 같은 느낌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선생님의 시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라는 개념을 통해 피까지 맑아지는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이제까지 1부에서는 이문재 선생님의 시와 글쓰기에 관한 생각들을 통해서 문제적 개인 이문재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최근 선생님 시와 행동으로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생태적 상상력”에 대해 여쭙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2 부: 생태적 상상력과 시인의 마음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학자다.’

한인정: 이문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생태적 상상력’ 기본소득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광 시인님께서 선생님의 최근 시집에 대해 지구는 ‘대전란의 화염과 비명’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인간은 문명 폭주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속에 제 발로 들어’섰다고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냈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문재: 이영광 씨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 시인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과 여럿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예요. 그거만 알면, 모든 것은 땅에서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생태적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알고 있는 한.”

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젠 시는 안 써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를 잘 쓰는 후배들이 짝 깔려 있잖아요. 그 부러워하는 시인들 중 한 명이 이영광 시인입니다. 이영광 시인이 제 시집에 대해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맨정신이라면, 깨어 있는 정신이라면,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이 위기 상황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만약 제 시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시가 문명 폭주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제 발이 빨려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정: 선생님을 표현할 때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시에서 ‘몽상’, ‘편력’, ‘산책’, ‘느림’, ‘농업’, ‘오지’와 같은 열쇳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생태적 상상력을 지향해 오

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생태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요?

이문재: 지금 ‘몽상’에서 ‘오지’, ‘제국’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문학적 생애가 바로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학자다’ 이게 김종철 선생님이 『녹색평론』에 늘 실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젊은 시절의 시는 몽상, 편력, 서정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은, 제가 1984년에 기자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사회에 나온 건데 사회에 나와서 한 2~3년은 제가 일과 문학을 명쾌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낮에는 기자생활을 하고 해가 지고 나면 시인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경계가 어느 날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적 삶에 자꾸 지배된 거죠. 그때부터 이걸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감지했죠. 그래서 저는 ‘생태주의’라는 말을 알기 전에 이미



제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 산업문명의 문제점들은 자각했습니다. 자각 증세가 있었던 거죠.

『게으름의 찬양』과 『녹색평론』,  
생태적 상상력의 두 기원

이문재: 그때부터 일종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두 번째 시집부터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죠. 그때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얇은 분도출판사에서 나왔고 장익 신부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자크 러끌레르(Jacques Leclercq)가 벨기에학술원에 들어가면서 한 연설문 하고 몇 편의 짧은 에세이가 실려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요즘 말하는 ‘생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산책’, ‘느림’, 이런 걸로 이 산업문명, 자본주의, 도시적 삶에 한번 저항을 해보자 거리를 뒤보자 했죠.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됐어요. 1991년에 『녹색평론』이 창간됐는데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런 대안이 있구나. 그 뒤로는 사실 기존의 일반적인 문학으로부터는 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녹색평론』에 나오는 상상력이 문학이 갖고 있는 상상력보다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전환이 저한테 찾아온 것이죠. 러끌레르하고 김종철 선생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잘 살았겠죠.(웃음)

한인정: 그때 만난 『녹색평론』의 상상력과 선생님이 이전에 추구했던 문학적 상상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문재: 어려운 질문인데요.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쓸모없음으로 쓸모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색평론』에서 나오는 상상력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고 만다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상상력이예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정: 이전부터 몽상, 편력, 산책, 느림 이런 걸 자각하고는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생태’ 쪽으로 발화, 행동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문재: 제가 울고 싶었는데 두 분이 세계 때리신 거죠. 여기는 러끌레르가, 여기는 『녹색평론』이.

내 인생의 복 김종철

한인정: 『녹색평론』 발행인이신 김종철 선생님을 쫓으면서 가르침을 따르려 하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김종철 선생님하고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이문재: 2002년인가 2003년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와서 책을 같이 만들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2001년 가을에 제가 『시사저널』 기자일 때 『녹색평론』 10주년을 맞아 저가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카메라 들고. 그때 처음 뵈죠. 물론 그전에 『녹색평론』이 나오거나 녹색평론사에서 단행본이 나오면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매번. 그래 저는 술 자리에서 그랬죠. “난 『녹색평론』 서울 특파원이다” 자임을 했어요. 근데 아마 김종철 선생님께서 『시사저널』을 쪽 읽어 오신 모양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은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서평을 제일 먼저 실은 매체가 『시사저널』이었습니니다. 그때 김성동 선생이 서평을 쓰셨는데, 제가 이런 책이 있는데 서평을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김훈 국장한테 물어봤죠. ‘아마 김성동 선생이 관심이 있을 거다’ 해서 청탁을 했더니 바로 원고를 주셨어요. 나중에, 이걸 김성동 선생한테 확인한 건 아닌데, 김성동 선생이 『오래된 미래』의 최초의 서평자라는 사실 때문에 김종철 선생한테 큰 소리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저는 제가 편집에도 관여하고 기획안도 내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전 편집 자문위원이었는데, 자문회의를 하면 많을 때는 열 분 정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듣고, 적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전 세계 주요 매체, 《가디언》부터 시작해서 《뉴욕타임스》, 일본의 『세카이』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예요. 국내 언

론은 물론이고요. 끝없이 공부하셨어요. 끝없이. 원래 문학 비평을 하셨잖아요? 근데 불소(화학원소 F) 문제를 가지고 현실 세계하고 싸웠죠. 문학 비평과 불소, 불소화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이 산업문명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글이든 강연이든 현장이든 가신 분이예요. 제가 이번에 지구에 와서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에게 복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분들. 그런데 만난 건 복인데 그분들을 따라 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부담.

장시정: 말씀 중에 『녹색평론』에서 하신 일들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녹색평론』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녹색평론』을 읽으면서 자기 삶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작은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던져주실 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제가 『녹색평론』에서 한 일은 거의 없고요. 가끔 특집 기획을 맡거나 좋은 필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배병삼 선생이나 김상준 선생, 전우근 선생 이런 분들의 연재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평론』 때문에 삶의 방식, 가치관을 바꾸신 분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오히려 존경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녹색평론』을 안 읽어요. 김종철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제일 고민거리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녹색평론』을 읽을까, 읽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큰 해결책은 찾지 못한 셈이죠. 저는 젊은 분들이 『녹색평론』을 좀 읽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 자기만의 김종철-되기와 ‘60+ 기후행동’

한인정: 최근 ‘자기만의 김종철’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들 같아요.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는 시 「남녘 사십구재」를 쓰셨는데 거기

에 ‘김종철을 계승하되 김종철과 더불어 또 김종철을 넘어 서려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만의 김종철이 필요하다’라고. 그건 어떤 의미로 쓰신 걸까요?

이문재: 그걸 저한테 국한을 시키자면,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현실과 만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나게 하면 내가 또 다른 김종철이 되는 것이겠죠. 귀농, 귀촌을 하거나,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개혁하거나 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존의 좋지 않은 것들을 바뀌어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새로운 김종철’이라고 규정합니다. 두 분도 김종철이죠.(웃음)

장시정: 세상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김종철’이군요. 그럼 선생님은 그 실천으로 올해 종로 탑골공원에서 ‘60+ 기후행동’을 출범시킨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재: 아닙니다. 출범시킨 분들이 있으세요. 그야말로 실천가, 활동가, 촉진자들이고요, 저는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거기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가서 뭘 쓰라고 하면 쓰는 대필 작가입니다.

장시정: 노년분들이 모여서 지구 위기,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선언문을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문재: 그거 쓰라고 해서 쓴 거죠. 그리고 그 선언문의 골자는 아까 맨 앞에 읽어드린 계간 《기본소득》 창간 축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첫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어린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 젊은 친구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 등등. 지금 결국은 60+ 세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근대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의 열매를 따먹은 파렴치한들이잖아요? 근데 이것 몰라요. 다 내가 열심히 산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큰소리만 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왜 공부를 안 해? 왜

열심히 살지 않아? 왜 꿈이 없어? 전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립식 때 만든 슬로건 중 하나가 이거예요.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저희 세대가 각성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의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노인들의 각성운동, 노인들의 실천운동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노인이 달라지면 저절로 청장년, 어린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가 바뀝니다. 이대로 가면 이건 인류사적인 범죄예요. 이 노인들이 이대로 누리다가 가면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쓰기를 좋아해요. 인류세가 도래했는데 인류가, 노인이 먼저 반성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세는 30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지구가 뜨거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세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제가 맥박이 빨라지네요.(웃음)

장시정: <60+ 기후행동>에서 60대 이상을 참여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네요. 한국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 산업화, 근대화의 열매를 받아 안았는데 그게 환경과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문재: 불편함이 아니라 범죄이고 횡령이에요.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횡령이죠. 제가 60대,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을 하면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10명 중에 12명은 돼요.(웃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서 무릎 꿇느냐?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10명 중에서 15명이죠. 또 늘어났어요. 지금.

장시정: 미래와 환경의 횡령범인 60대들이 모여서 기후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보면 청소년, 청년 기후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기후활동가들에게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문재: 아니, 전혀 없어요. 잘 하고 계신데요. 그걸 안 하는 청년들한테는 할 말이 많죠. 어디다 제가 쓰기도 했지만 지금 청년들을 보면 이 경제적 공포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고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예체능계 예술가들이 돈 없이도, 돈을 적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요. 누가 제 말 듣나요?(웃음)

한인정: 저도 기후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런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으면서 느리게, 산책하며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980년대에는 직업도 맘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지만... 그런 기회들을 뚫어 주는 것이 노년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문재: 노년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유산을 자기 혈연한테 줄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런 운동도 앞으로 펼치려고 그래요. 다 환원하라고 하면 아까워하니까 1%든 5%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라고요. 기본소득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 60+ 세대의 자기성찰의 필요성과 털어놓기적 글쓰기라는 매개

한인정: 60+ 내에서도 사실 격차가 있잖아요? 60+ 전부가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문재: 다양합니다. 원래부터 다양하려고 했고. 기존의 위계가 분명한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 열려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까닭에 좀 느립니다. 정책 결정이. 아직 정책이라는 말을 단계는 아닌데요. 아주 느립니다. 논의 방식이 아주 느려요. 천천히 가려구요.

한인정: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나요? 궁금한데요.

이문재: 당장 5월 22일이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예요. 지금 지리산의 구상나무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리산 활동가 분들과 6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단히 싫어하시더라구요, 어쨌든 노년분들이, 60 더하기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조출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는 국회 앞에 가서 내가 낸 세금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써라, 그런 활동도 했어요.

그런 활동과 한편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노년들로 하여금 각성에 이르는 방법은 자서전을 쓰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 ‘자서전 학교’를 곳곳에 만들고, 자서전이 만약에 힘들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합창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이 이렇게 방치되면 그 각자 개개인의 삶이 황폐해지건 물론이고, 그건 큰 병이잖아요? 전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재탄생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60+ 기후행동>이 아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앞으로 준비할 겁니다.

장시정: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성찰과 재탄생의 방법인 글쓰기가 <60+ 기후행동>의 주요 활동으로 포함되겠네요?

이문재: 나가서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노년 세대로서 세상을 향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인정: 자서전을 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물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들은 느리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60+>한테 지금은 느리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사실 돌아봐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문재: 제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3, 14년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주는 첫 번째 주제가 ‘선생님의 생애에서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지 찾아서 써

라. 다만 성장기에’입니다. 열추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일반시민 500여 명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주제로 500여 편의 글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500명이 열세 살부터 팔순 할머니까지이고 직업



장시정

도 다양합니다. 대통령하고 검찰총장 빼고 다 왔습니다 -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그다음 주에 제가 여쭙습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 그럼 답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놀랍게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예요. 누군가가 ‘한국 사회가 왜 문제냐?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3호선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질문해서 그런 답이 나왔다면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자기가 글쓰기를 위해서 온 분들이예요. 그분들은 평균적인 한국인이 아니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지경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성찰을 하려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안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앞을 보느냐? 안 봐요. 이 글쓰기의 마지막 주제는 ‘당신이, 선생님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설계해서 짓고 산다면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예요. 500여 명 중에서 3명 빼곤 다 시골이예요. 그리고 하늘이 보이는 넓은 천장이 있고 텃밭이 앞뒤에 있고 절반은 한옥, 큰 거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이걸 동네 사람들 하고 즐겁게 지내려고요, 남자들은 지하에 반드시 공방이든 여자들은 2층에 조그만 다락방 하나가 있죠.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로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현재가 있느냐? 과거

와 미래 없는 현재가 어딴어?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무슨 신이 계신 거 같아요. 나는 원래 무신론자인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아니, 신이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회가 지탱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인정: 사람들이 껌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껌데기로 살아가고 있어서 글을 써도 내면을 찾기 힘든 글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안에 분명 자기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문재: 그런 계기가 없어요 계기. 그런 계기를 우리 사회든 종교든 기업이든 학교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인정: 자기를 찾는다면 달라질까요? 글을 써서 자기를 알게 된다면?

이문재: 많이 달라져요. 사실 그게 무섭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잘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전통 병과를 만들어 장사를 하다가 바로 망했죠.(웃음) 그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아마 제가 전수 조사를 하면 가정이 파괴된 데도 몇 군데 있을 거예요.(웃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서. 등단한 친구도 있어요. 책을 낸 친구도 있고.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아니 다시 태어났는데 안 달라지겠어요.

####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부조화와 감성적인 언어의 필요성

장시정: 선생님은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문화 중심, 자본주의 중심의 사회를 바꿔 나가기를 원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60+ 기후행동>에 계신 각각의 영역에 계신 여러 분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그런 활동을 꼭 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해 본인들이 뭔가 수탈, 착취해 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 대재앙에 관심도 없고 현재와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처럼 기후활동을 하는 분들의 현실 참여와 행동이 많

은 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후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특정한 날에 뭔가 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다른 분들과 힘을 모아 다양한 장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행동에 동참하자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문재: 그게 딜레마죠.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투표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삶의 변화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원인이 뭐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토끼하고 다르지 않대요.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책을 보면 ‘구석기의 저주’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지금 7~80억에 달하는 인류가 문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지구조, 감정의 시스템은 만이천 년 이전, 신석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평균 50명이 무리를 지어 살았잖아요? 15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뇌는 진화를 했고 거기까지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큰 규모에서 너무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의 심리학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삽화가 나옵니다. 코끼리 조련사는 코끼리 등에 타서 과학 저널을 읽고 있는데 코끼리는 바나나가 어딴지 찾아다니는 그림이에요. 우리 이성이 우리 감정을 다 조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없는 소리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조련사가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육자든 간에, 조련사는 무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코끼리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 뒷부분을 보면 방법이 수십 가지가 나는 있는데,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환경단체에서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때 북극곰 쓰지 말아라’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이런 건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평생 활동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 보면 그 틀이 여전히 있어요. 세계 나가야 한다, 이런. 그래서 저는 <60+ 기후행동> 안에서 아주 소수

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평생 들어 보지 못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장시정: 사람들이란 흔히 자신이 그동안에 써온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되게 운동권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저한테는 그게 관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소년이나 청년 활동가들을 보면 그들의 직접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성찰 같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과정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문재: 자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걸 이렇게 건드려 주는 촉진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성찰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자기 소비나 하지. 자기 표현이 없어요.

### 그러므로 문제는 자기성찰이다

한인정: 아까 얘기하신 ‘나만의 김중철’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슬픔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기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기후위기가 되게 멀리 있고 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문제, 북극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글쓰기처럼 결국 나의 과거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고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럴 때 이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적 상상력이 탄생하는 거다, 이게 ‘나만의 김중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이자 최선인 것 같고요. 이제까지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폭넓은 주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

는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문재: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명상을 하든 산책을 하든 여행을 가든 친구들 하고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든. 우선 멈춰서 한 걸음 벗어나야 자기 성찰이 가능한데, 이 경제적 공포 때문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죽는 줄 안다고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회가. 이 사회적 압박을 견뎌낼 무슨 면역력이나 다른 걸 생각하는 힘들이 갈수록 없어져요 갈수록.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늘 지켜보는데 학생들이 과제를 내주면 다 해요. 시 창작 교실인데 날씨 좋아서 어디 가고 싶으면 가, 출석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에 딱 한 명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악과예요. 저는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출석 꼬박꼬박 하고, 왜 출석 안 부르냐고 해요. 갈수록 심해요. 부모님께 다 미안해하고요. 우리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벗어나나, 이른바 살부위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아버지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한테 미안해하고 부모님한테 잘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한인정: 요즘 청년들이 체제순응적인 게 경제적 공포에서 촉발된 것이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대인 <60+>부터 자신을 돌아보면 청년들이 또다시 용기를 내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작금의 현실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찰, 돌아보기, 생태적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생태적 상상력에 관심을 갖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선 생태적 상상력에 관심을 돌리기엔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진 이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그런 사람이 경제적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태적 상상력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과연 기본소득이 그들에게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한편 지구적 위기

에 적극적인 행위로 나서게 하는 가교로 적절한가, 만약 그 가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게 하려면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에는 무엇이 더 고려되어야 할까' 등등이 아닐까 하는데, 3부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 성찰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의 기본소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3 부: '지속가능한 인류세'를 위한 최후의 보루, 기본소득

좋은 나라, 먼 나라

한인정: 이문재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생태적 상상력과 기본소득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생태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안 읽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집을 펼쳐주세요. 「이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문재: 예, 떠들떠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이문재

입학식이 따로 없고 자기 생일 아침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여덟살짜리와 열두살짜리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라,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지구온난화를 해결하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할머니와 직장인과 미혼모 여학생이 한집에 사는 나라//등록금을 나라에서 다 대주는 나라//달리기 시합 때 아이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굴인 하는 나라//국민 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앞

세우는 나라//연간 입국 관광객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나라//군대 없는 나라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유전자 조작 식품을 키우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는 나라//에너지가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식량 자급을 위해 농업, 농촌, 농민을 존중하는 나라//새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게 하며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손자 손녀 세대가 쓰게 하려고 통나무를 잘라 건조하는 나라//시간 은행이 있어 아이 돌보기, 노인 보살피기, 이사, 가사노동, 집수리, 도구나 기계 고치기, 피아노 가르치기 등 재능을 주고받는 나라//댐 건설을 막기 위해 마을 어머니들이 나무에 자신의 몸을 묶는 나라//외부 주주가 아니라 직원이 100% 소유하는 백화점이 있는 나라//지역의 수백 농가가 참여해 유기농 낙농 기업을 운영하는 나라//전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헌법 해설서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나라//가난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는 나라//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나라//동식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즉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사실은 나라가 아니고 몇몇 선구자들의 꿈이고 실험이고 도전이겠지요//아직은 미미하지만 곧 우리 앞에 나타날 좋은 나라의 좋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좋은 이야기가 좋은 삶,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이 시가 '끝없이 이어지는 좋은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너무 길죠? 짧은 시가 좋은 시인데요.

장시정: 선생님의 시에 나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잖아요? 먼 나라가 아니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상 속의 나라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더

욱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최근 시집 『혼자의 넓이』를 보면서 자본주의 세계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면역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임박한 파국과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몬스 사케르’

이문재: 전 멸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멸망을 할 거면 한번 제대로 잘 해보자는 생각이예요. 『더 로드』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십여 년 전에 나온 책이고 영화인데 인류 최후의 날을 다룬 영화와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래는 인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지구도 관심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인류세가 도래한 뒤에 지구가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는 바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모질어서 나름대로 영리해서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조금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전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빠른 방법은 현실 정치를, 이 판을 뒤집어엮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시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리는 사후적 진리라고 하잖아요? 예상,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의 <D.P>예요. 군 탈영병을 추적하는 병사들의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가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고문관, 아니 관심사병의 대사죠. 하도 고참들이, 선임들이 힘들게 구니까 그 관심사병이 내무반에서 난사를 하잖

아요? 근데 난사하기 직전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지금 객관적인 조건, 환경을 보면 이 시스템은 오래 못 가죠. 그렇다고 한탄만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뭐라도 중의 하나가 저는 노인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데 한 발 걸쳐 놓는 것 그리고 제가 쓰는 글에 이런 메시지를 담는 건데,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인정: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지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와 닿은 건 고독에 대한 부분이었던데요. 선생님 작품 중에서 「활발한 독거들의 사회」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고독한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특히 자족적인 독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구요. 그 표현처럼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이 많지만 다 각자 홀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 독거, 고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원하는 게 사람이죠. 현대사회에서의 고독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문재: 현대사회의 고독은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가족 구조가 이렇게 됐죠. 마을이란 말을 쓰기가 어색할 정도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죠. 결국 파고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건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죠. 삶의 질이나 삶의 성격을 소비의 수준으로 다 환원시키고 있었어요. 대중소비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건 아니예요. 다 나와 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부처부터 예수, 공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게 넘쳐나요. 지금은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개인의 실천만 얘기해요. 종이컵을 쓰지 마라 등등. 이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 해결을 미룬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김종철 선생님 얘기를 하면 김종철 선생 칼럼 중에서 “몬스 사케르”라는 칼럼이 있어요. 몬스 사케르 Mons Sacer는 로마시대의 한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산이죠. ‘몬스’는 산이고 ‘사케르’는 성스러운,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시대 때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산으로 올라가요. 지금으





로 치면 국민 파업을 하는 것이죠. 국민 파업. 발음만 해도 신이 나네요.(웃음) 평민들이 다 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당시의 정치인들, 원로원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알았어요. 재들 그냥 놔두면 금방 내려올 거야, 무시한 거죠.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어, 애들 봐라, 하면서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도 안 내려왔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호민관이라는 제도예요. 저는 우리 곳곳에 그런 몬스 사케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날 다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인정: 국민 파업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여학생이 나무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문재: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에서 국가, 도시를 폐쇄했잖아요? 이것 잘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인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제가 만난 10대 청소년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한 대요. 그래서 그게 뭘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문재: 그게 1인 혁명이예요.

한인정: 그 친구가 알고 보니 혁명가였어요, 진정한 혁명가였네요.

이문재: 그런 친구들이 많아져야 돼요.

한인정: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한다.’

이문재: 특종을 하지 않으려는 기자들도 많아져야 돼요. 시를 안 쓰는 시인도.

한인정: 저희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야 되나요?(웃음) 인터뷰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공포로부터의 탈주와 기본소득

장시정: 앞서 말씀하셨듯 경제적인 공포가 모든 사람들

을 집요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소외와 차별과 배제가 그 공포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적 상상력은 당연한 거고, 그 생태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매개라고 봅니다만, 이 악착스러운 경제적인 공포에서 벗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문재: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글도 몇 편 썼는데, 그중 하나가 성격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어라. 저는 그게 기본소득의 기원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성격의 기사(奇事)를 보면, 포도원에 온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 하면 포도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픈 사람이랄지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라라고 말을 덧붙였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소득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름이 생각 나지 않은 분의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마라.” “물고기를 쥐라.” 우리는 그동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나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일단 물고기를 쥐야 살아가고 그래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때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재밌는 통계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독일 시민들한테 기본소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받겠다.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 같다’고 답하죠.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볼 때마다 기본소득 운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와닿질 않아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탄소중립’이란 말도 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중립이 뭐지? 안 와 닿아요. 기본소득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걸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좀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구요.

또 하나, 기본소득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켄 로치 Ken Loach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예요. 국가가 시행하는 지금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그걸 받는 수급자들을 대단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낸 세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내가 받는 건데, 그건 권리잖아요?, 당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행정 시스템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그 권리를 무시하죠. 기본소득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당연한, 신성한 권리라고 인식해야 해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하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다 그걸 몰아가요. 그럼 개는 못 놀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동네 친구는 나중에 자기 딱지 몇 개씩 나눠주잖아요. 그래야 이 친구는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농민, 농부를 공무원 신분으로 격상시키자!’ ‘농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공적인 일이다.’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기본소득 이야기가 좀 활발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약간 나오다가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흘러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인정: 아쉬움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웃음) 기본소득의 최근 논의 방향이 공유부, 공유지 개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유부를 공유할 권리가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사실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돌봄도, 산책 같은 것만 행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한다, 그것은 절대 그 어떤 시혜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 물어

볼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을 언제, 어디서 만나셨는지?

이문재: 『녹색평론』에서 일찍이 만났어요. 아주 일찍.

한인정: 김종철 선생님, 듣고 계시죠?(웃음)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예요.

이문재: 『녹색평론』이 상당히 일찍이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와 농촌기본소득

장시정: 저도 김종철 선생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한 10년 쯤 전인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만들어지고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했었는데 그때 김종철 선생님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활동을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어느 칼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뿌리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농민들하고 같이 집회를 해서 아스팔트, 농사 그런 얘기가 더 익숙한 표현이기는 한데. 그런 말씀과 함께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업을 살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영역인 농업,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미래로 가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잠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말씀 더해주세요.

이문재: 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구요.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농민한테 주는 것이냐 농가한테 주는 것이냐 농민의 기준이 뭐냐 같은 여러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제도는 전문가들이 마련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다만 농업, 농민, 농촌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걸 알면 자연히 농민기본소득으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것이 식량자급률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시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

는지 아냐? 그랬더니 언짢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느냐는 반응이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문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 또는 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식량하고 에너지처럼 근본적인 게 어딴어요? 식량과 에너지만 놓고 보면 전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가가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자들의 에너지 식량 정책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썬 데 가서 구해오면 된다, 저 만주, 그다음에 베트남 거기 삼각주 그런 데서 가져오면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나라는 장사꾼 집안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집안이에요. 만약에 장사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살지요, 농사를.

콜롬비아 다녀온 얘기를 안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해야 되겠는데, 최근 ‘한국문학 앤솔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의 시 6편이 스페인어로 번역돼 실렸어요. 콜롬비아 한국문학 행사 자리에서 객석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농업, 농사에 대한 시를 보내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 분이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에도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 시 비슷한 게 있는데 당신의 시를 보니까 그 노동요가 생각난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다 생태적 상상력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를 삶아 먹으면 된다, 먹을 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죠. 타이어도 삶아 먹고 핸드폰도 2년 지나면 구워서 먹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이 땅에서 온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몰라요. 애들에게 음식이 어디서 오냐 물으면 마트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난 이거 교실에서 물어봐요. 지금 입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오냐? 땅에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sup>Helena Norberg-Hodge</sup>과 여럿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예요. 그거만 알면, 모든 것은 땅에서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생태적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알

고 있는 한.

장시정: 예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식량안보는 어떡하나, 뭘 먹고 사느냐 했더니 핸드폰 판 걸로 먹고 살면 된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그렇지만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천시와 무시, 배제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문재: 그렇죠.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삼남 지역(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수도권에 있는 공단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농민, 농촌, 농업을 말살시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만 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천히 근대화를 해서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천 불 정도 되었다면 그래서 골고루 가난한 사회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안 하고 있겠죠.

#### 초국적기업과 작은 정부라는 뒷

한인정: 사실 농촌에 있는 농지가 가장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도 농지에 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할머니들이, 아까 낭독해주신 시 속의 댐을 지키는 할머니들처럼 온몸으로 농지를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 농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는 마트에서만 사니까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저기 저 정부, 윤석열 국가라고 봐야겠죠?

이문재: 아니요. 사실은 정부 역할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건 초국적 기업이죠.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도 안 써요. 초국적 기업. 그 초국적 기업의 빅 3가 있잖아요. 제약회사, 곡물회사, 군수산업.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 하수인이예요. 하수인. 작은 정부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전 정부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부가... 그래서 기업을 통제해야 되는데 기업하는 분들께서는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라고 하죠. 이 용어를 쓰기 싫지만,

'신자유주의'인 거죠.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 논의에서 마을공동체라는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마을에서 상호 부조하는 전통 이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국가, 왕조가 한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마을 단위로, 아까 공유지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으로 경작하는 논과 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배우자를 잃은 가정이나 아픈 사람들, 마을 공동 행사에 썼죠. 그 농민 사회는 아주 엄청난 민주주의 사회였어요. 어떤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과두제죠. 과두제.

#### 우리 모두의 재탄생과 윤석열 국가 넘어서기

한인정: 지금 국가는 최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밑에서 앞으로 5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5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문재: 이걸 답을 하기가 싫은데요.(웃음) 아까 자기성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기성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거기서부터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저는 민주주의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원리는 단순해요. 유권자가 생각이 바뀌면 유권자가 기후, 기본소득 얘기만 하면 저자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재탄생하면 정권이 재탄생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딿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한인정: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촛불만 들고 내리면서 저 정권이, 그러니까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리로 바뀌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는 그렇지 않았죠.

이문재: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공유해야 해요.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죠. 다수결로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왜곡시킨 거예요. 저분들이.

한인정: 오늘 여러 번 등장하시는 저분들입니다. (웃음)

장시정: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정책화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 한 4일 된 정부인가요? 딱딱딱한 정부인데,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의 작은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기본소득 운동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소득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문재: 반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원하는 공약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자각할 것 같아요.

한인정: 반어적이네요.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문재: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바꾸지 않고, 끝까지.

한인정: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극단에 치달았을 때 뭔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성찰의 계기로도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으면 다 소비하고 써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의 김종철’ 그리고 ‘나의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문재 선생님을 모시고 ‘생태적 상상력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 2, 3부 다 이어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류보선)